

2/16(수) 스가랴 묵상 13

스가랴 7:8-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또다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사회 윤리의 실천 명령인데 11-12절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12절하-14절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9-10절,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행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훼’로서 스스로 계신 자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첫째로, 진실한 재판을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둘째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실천의 명령을 유다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문제가 곧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먼저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잠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딱딱한 상태의 ‘길가 밭’이 나오는데 오늘 12절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눈과 밭의 땅을 기경하면서 그 안에 돌과 가시 등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 밭을 무질서하게 어지럽히고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악한 것에게 내어 주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행위가 마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미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노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12절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가장 큰 진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유기하신 일입니다(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난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겔 10:18,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신 가장 큰 형벌은 그들을 유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셨으니”). 게다가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 그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시고 또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하셨습니다(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앗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이 곧 재건되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같은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그들이 추구해야 할 영적 목표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로만 선민이 아니라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기대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의 나를 돌아볼 때 지금의 나를 생각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같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억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과감히 우리의 죄된 습관과 과거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새로운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일이 이제 우리 안에서 가능한 이유는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의 과거를 더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사 43: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둘째로,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만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빌 1:6,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라기는 이러한 주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으로 인해 국민들이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영적 각성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성숙한 교회로 일어서게 하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햄튼 1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콜럼비아개혁신학교(보고타)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